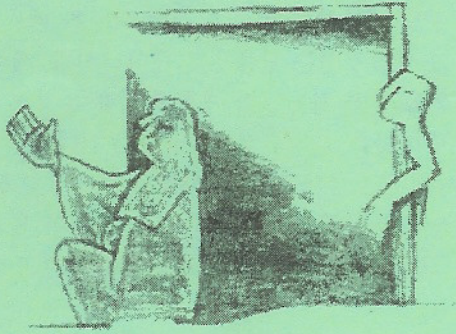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0주일(목주기도 성일)
 제27권 48호 (다해) 2007.10.28

[묵상]



소리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힘
 말이 되지 않아도 이미 읽고 계시니
 내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지
 그 분은 이미 알고 그만큼 응답해 주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려회 (장애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오전 7:30
	주일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10:3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M. 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오후 1:00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가정의 날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파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오재현, 김순희 헬레나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주 일 낮 미사	(연)김금란 수산나,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김정재 안젤라, 이규형 곤잘레스 유지원 엘리스, 김종돈 스테파노, 이은완 야고보 박모이세와 이누갈다, 김홍배 루카, 김홍기 (생)이정훈 안셀모와 도미니카 대건 안드레아 가정 이종민 요셉, 정열모 미카엘과 미카엘라 가정 이복현 마리아, 오시몬, 김은 안나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5,15-17.20-22
화답송	◎가없는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셨도다. <전례성가 92, 연중 제30주일 다해>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 리 없으리라. 보라, 가없는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 둘레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도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들여라. 복되다 그 님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여.◎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4,6-8.16-1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도다.◎
복음	루카(Luke) 18,9-14
영성체송	우리는 주님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7	332
봉헌	364	257,270
성체	401	291,308
파견	394	181

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역사상의 예수님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지금부터 약 이천 년 전, 팔레스티나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느님이시지만 죄만 빼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원래는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요한 1,1-5)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지방의 수도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위치한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인류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이었다. (마태 1,18-25; 루카 1,26-38) 예수님께서서는 부모를 모시고 나자렛을 고향으로 삼아 당신 일생의 많은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하며 생활하셨고, 하느님의 율법에 순명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하셨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켜 시작된다. 세례자 요한은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였다. 그는 갓은 금욕생활을 통하여 요르단 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시기 위해 물로 세례를 받으신다.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서 40일 동안 단식과 기도를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 갈릴래아 지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선포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구세주(메시아)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당신께서 하느님의 인간 구원 사업을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과 행적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복음선포는 단순히 설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온갖 유혹과 욕망에 묶인 이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도 인간 구원의 절대 조건인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당신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아무도 예외 없이 사랑하셨다. 악성 피부병인 나병으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격리되었던 환자들,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세리들,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루카 5,31-32)고 말씀하셨다. 나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가?

◆(계속 - CBCK 제공)

내 기도의 크기는 몇 평이나 되는가

오늘 복음(루카 18,9-14)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는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영적인 교만함이 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보이기에 합당합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우월적이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자기자랑을 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우쭐하여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 보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반성하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기도하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내 삶에 반영이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이 나고 목시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세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함과 인간다움이 묻어 나는 기도입니다. 이에 비하여 바리사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는 민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고 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죄라는 결과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바리사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자신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 처지, 아픔을 느끼고 헤아리기보다 자신이라는 벽에 부딪쳐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본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거리를 두고 봐야 하는데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당신을 따라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요한 14,13) 기도하고 구하며 간청하라” (마태 7,7)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겸손된 것이어야 하며(루카 18,9-14), 깨어 있는 마음(마르 13,33),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신뢰하는 마음(루카 11,5-13)과 순수한 지향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마태 6,5-8) 바쳐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의 크기는 수백만 평이 되어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헐뜯고, 뒤에서 비난해도 내 기도의 크기가 한두 평이 아니고 수백만 평이 되기에 그 사람에게 웃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곤란, 번민, 아픔, 괴로움 따위에도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나의 기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정원순 토마스 데아퀴노 수사신부
 <지극히거룩한구속주회>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테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변혜경 율리아나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4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목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4,511단 ☞ 총 합계: 209,206단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살피봅시다.
11월 위령성월
 ◆ 병자영성체 : 1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모든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 1일(목) 오후 7시30분
 ◆ 성시간 : 1일(목) 저녁미사와 함께(진행: 토런스 동구역)
 ◆ 위령의 날 미사 : 2일(금) 오전 8시30분
 ◆ 성모 신심 미사 : 3일(토) 오전 8시30분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11월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Main Chaple
 ● 주소: 5835 W. Slauson Ave. Culver City

- ◆ 레지오 마리아 재창단을 위한 모임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오후 8시15분부터) 레지오 마리아 재창단을 위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입단을 원하는 형제자매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 ◆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해제
 ● 지난 7개월반동안 실시돼 온 서머타임이 다음 주일(11월4일)을 기해 해제됩니다. 4일 새벽 2시를 기해 시계바늘을 1시(2→1)로 돌려 놓으면 됩니다. 미사시간에 차질없도록!!!
 ● 2007년부터 변경된 서머타임 기간 : 매년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 ◆ 안나회/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11월 6일(화)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출발
 ● 장소: Lake Elsinore Hot Spring
 ● 회비: 회원 \$15, 비회원 \$25
 ●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 310-944-2737

- ◆ M.E. 제정 ‘사제의 날’
 28일 오늘 주일은 세계 M.E.가 제정한 사제의 날입니다. 세상 안에서 목자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활하고, 사제적 완덕의 길을 발견하고 이 길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와 사랑을 전합시다.
- ◆ Homeless People 돕기 두번째 행사
 홈리스 피플 돕기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교우들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첫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두번째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11월11일(둘째주일) 오후 5시30분
 ● 장소: 롱비치 Project Achieve Center
 ● 이발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기다립니다
 ☎ 310-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 중고 휴대폰 수집 캠페인
 대건회가 환경보호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중고 휴대폰을 수집합니다. 각 가정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수집장소: 성당 각 문 입구에 수집함 비치
 ● 문의: 천광락 야고보 ☎ 310-408-3175

- ◆ 전 신자 대상 “은혜의 밤”
 2007년 전례주년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새 전례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은혜의 밤”에 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1월29일(목)~30일(금), 성전
 · 찬미: 오후 7시 · 미사: 오후 7시30분
 · 특강: 오후 8시~9시30분
 ● 지도: 오수영 히지노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창설자)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 28일: P.V. 3반 (우거지 갈비탕 \$3)
 ● 11월 4일 : M.E. 기금마련 (빈대떡, 국밥, 족발 등등)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 은	김우용	김일선	김찬구	김철민
	김충섭	민경근	민상기	민소예	박상준	박태준
	배태임	서홍삼	안희경	엄세종	엄혜은	오 진
	오기석	오세정	우영주	우영희	육근주	이경태
	이봉덕	이용식	이일길	이중환	임현기	조소영
	조준제	차봉관	채양석	최상만	최원석	홍숙자
황인중	신영웨버				합계 : \$ 3,790	

성전헌금	권태만	김 은	김우용	김일선	김찬구	김철민
	김충섭	민경근	민상기	민소예	박상준	박태준
	서홍삼	엄세종	엄혜은	오기석	우영희	육근주
	이경태	이봉덕	이용식	이일길	이중환	임현기
	조준제	차봉관	채양석	최상만	최원석	홍숙자
	황인중					합계 : \$ 3,860

미사헌금 : \$ 2,913

감사헌금 : 배난군, 엄혜은, 이경태, 유희연, 익명

공지사항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구독신청 받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로 발행되는 유일한 가톨릭 신앙지(월간)입니다. 영성지를 읽는 기쁨을 누리고, 또 성탄을 앞두고 지인들과 이웃에게 선물하세요. 한영국 올리아나 주간이 홍보차 우리 본당에 옵니다.

- 홍보 및 구독접수: 11월3일~4일 미사 후
- 구독료: 연 \$70 ☎ 917-301-6999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1일 점심과 차

장애식구 토요학교 후원을 위한 행사로 일일 점심과 차집을 엽니다. 모든 교우들과 가족단위 방문 환영합니다.

- 일시: 11월3일(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 장소: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 1137 Arapajoe St. LA
- 메뉴: 갈비 백반(1인당 \$10) ☎ 213-387-3301

◆ 2007년 가을 “선남선녀 만남의 장” 제 4기

- 일시: 11월9일(금)~11일(주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신청자격: 26~39세 미혼남녀 각 20명
- 참가비: 숙식포함 \$250
- 신청: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2008년 신입생 모집

- 대상: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 교과내용: 성경 및 신학 일반
- 원서교부 및 접수일자: 2007년 11월12일(월)~2008년 2월 15일(금)
- 가톨릭 교리신학원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 제 26회 추수감사절 남가주 한인 천주교회 합동 야외미사 및 2부행사

- 1부 미사: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엘도라도 파
- 미사 주제: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 2부 행사: 각 본당 대항 가장행렬과 줄다리기
- 가장행렬: 성서에 바탕을 둔 내용이면 됨
- 줄다리기: 참가인원 20명(남성15명, 여성5명)
- 신청마감: 10월30일(화) Fax 818-242-4322
- 주관: 성 마태오한인천주교회 ☎ 818-242-4377

◆ 꽃동네 제2차 구역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12월 2일(주일) 오후2시~ 9일 오후 1시(7박8일)
- 대상: 일반 신자들, 참가비: \$200
- 신청: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명자 데레사 328-0847 11/9(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박선화 안나 325-3888 11/10(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11/16(금) 오후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종택 베르나르도 542-5517 11/3(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조은아 올리아나 533-02??? 11/13(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박명자 마가렛 326-5867 11/16(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현창 야코보 214-2290 11/9(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1/9(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이병우 마리노 891-3315 11/10(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11/30(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1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11/14(수) 오전 10시30분

2007년 10월 '전교주일' 교황 담화문(요약)

은 세상을 위한 모든 교회

이번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온 백성, 곧 목자와 신부,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교회의 선교 활동이 지니는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번 전교주일을 위하여 선택한 주제는 “은 세상을 위한 모든 교회”입니다. 이는 모든 대륙의 지역 교회가 우리 시대의 점증하는 심각한 도전들 앞에서 선교 활동에 새롭게 나서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랜 전통’의 교회들은 과거에 선교를 위해 물질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제, 남녀 수도자, 평신도들을 꾸준히 보냄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교 지역의 신생 교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파견한 교회에서도 풍성한 사도적 결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세속화를 직면하여, 또 가정의 위기와 성소자 감소, 성직자 고령화 등의 현상들을 보고, 교회는 자신 안에 갇혀 그들의 선교 노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복음이 전파된 교회 공동체들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에게는 사제들과 봉헌된 이들이 풍부한데,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지역의 많은 필요에도 다른 곳에서, 심지어는 오래 전에 복음화 된 곳에서 사목 직무와 사도직 봉사를 수행하도록 보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의 교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교 임무는 교회가 오늘날 인류에게 파랑히 해야 할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문화와 사회와 윤리의 변화를 지도하고 복음화하며, 전 세계 각지에서 가난과 폭력, 또 체계적인 인권 유린으로 모욕과 억압을 받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본래 선교적이고, 바로 그 토대는 주님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의 척도인 복음화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선교는 더 이상 단순히 복음화 활동에 협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이고 공동 책임자로 인식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책임 의식과 더불어 공동체들 간의 친교가 성숙되고 오늘날 복음화에 필요한 수단들의 활용뿐만 아니라 인력(신부와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선교 명령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전교주일을 통해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도모하고, 우리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 간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선교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적 여정과 교육 여정을 함께 일구어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 활동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부름이 모든 공동체 안에 울려 퍼져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언제나 기꺼이 선교 활동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또한 저는 병마와 싸우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말씀드리며 구원 활동에 대한 그들의 신비롭고 없어서는 안 될 협력의 가치를 기억합니다. 봉헌된 이들, 특히 봉쇄 수도자들이 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모든 신자의 노력 덕분에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지지의 영적 유대가 온 교회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초대 교회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간 동정 마리아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랑의 성령 강림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삶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증언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과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자격으로 복음선포에 헌신하는 모든 이를 날마다 기도 안에서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로서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냅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